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전남 경선을 이틀 앞둔 27일 오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왼쪽부터) 후보가 손을 맞잡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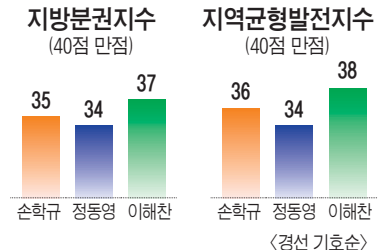
## 지방의 선택! 희망2007 대통합신당 대선후보 지방분권정책

### 이해찬, 분권의지 가장 높아

지방신협·지방분권운동 공동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후보 등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비해서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지가 훨씬 높아 정당 간 차별성이 뚜렷했다. 세 후보 중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참여정부의 정책 계승 의지가 제일 높았고, 손학규 후보는 중간, 정동영 후보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4면>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과 광주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등 전국 9개 주요 지방일간지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회회는 지난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3명에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정책질의를 △지방분권(중앙권한 이양·지방분권형 헌법개정·자주재원 확대·지방세 신설 등) △지역균형발전(지방대학·경제·문화·의료·언론 등 육성방안) 등 2개 분야, 총 33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분야별 속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문항 10개씩을 선정, 문항별로 4~1점(분권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긍정 4점, 가장 부정 1점)으로 서열적도를 매겨 합산(각각 40점 만점)한 결과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37점으로 분권의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어 손학규 35점, 정동영 34점이었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도 이해찬 38점, 손학규 36점, 정동영 34점 순이었다.

박영감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정책위원장(동의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이해찬 후보가 참여정부 정책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정책의지로 보서는 대통합신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본보 8월17일자 1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당 간의 정책 차별성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분권을 위한 정부 및 청와대 내 새로운 분권추진기구 설치”에 대해 이 후보는 세 후보 중 유일하게 “국가균형원 및 대통령 비서실 자체 수석실 신설이 모두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2면으로 계속>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의 선택, 전국이 주시

### 내일 신당 광주·전남 경선...“내가 이명박 대항마” 각축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광주·전남 경선투표(29일)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과 국민들이 광주·전남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경선 결과는 수도권 호남 출신 유권자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데다, 신당의 경선 흥행 여부와 대선 정국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 국민의 관심이 ‘호남의 선택’에 쏠려 있는 가운데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이상 기호순) 세 후보는 27일 지역민심과 승기를 잡기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3·4면>

세 후보는 이날 실시된 합동 유세와 TV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경선이

호남권 민심의 ‘바로미터’이며 향후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 하나 같이 광주의 ‘위대한 선택’을 호소하면서 자신만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라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동원과 모바일 동원 의욕, 당 지도부 및 중진위원들의 손학규 지지설 등을 놓고 팽팽한 설전이 벌어지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후보는 27일 오후 광주 염주실내체육관에서 합동 연설회를 갖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광주·전남 경선을 향한 불꽃 튀는 유세 대결을 펼쳤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손학규 후

보는 “어차피 대선에서 안될테니 당권이나 쟁기고 공천이나 쟁기자는 두려운 패배주의가 주변에 있는 데 이 광주 영령과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광주 정신”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해 선진민주대연합을 이루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해찬 후보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유일하게 광주 망월동에서 영면할 수 있는 광주유공자”라고 소개한 뒤 “광주는 신의를 선택했고 진실을 선택했다. 제가 책임지고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 지역·노사·남북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후보는 “광주·전남에서 일 등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통한다

고 확신한다. 광주·전남 경선은 대선 승리의 점화식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뒤 “동원선거에 대한 갖가지 주장이 근거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세 후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각 후보 지지자 2천500여 명이 막대풍선과 피켓 등을 흔들며 뜨거운 응원을 펼쳤고 연설 도중 연호와 비ანი이 오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연출됐다.

이날 오전 손 후보의 경선 합류 이후 처음으로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호남 고속철 조기 완공과 문화수도 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여수 엑스포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진보당 조봉암, 50년만에 누명 벗다

### 진실화해위, 국가 사과·명예회복 권고

이승만 정권 당시 진보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된 죽산(竹山) 조봉암 선생의 명예가 50년 만에 국가기관

에 의해 공식적으로 회복됐다. <관련기사 5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원회는 27일 “진보당 사건은 정적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한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한 비인도적·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결정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사

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 선생이 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00만표 이상을 얻어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막고 조선생을 제거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행뉴스

## 문화수도 사업비 5조700억

### 문광부 최종 보고회...문화전당 인근 상징물 건립·외부 주차장 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 증액과 랜드마크 보강 등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문광부는 27일 오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안 최종 종합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된 종합계획안은 문광부가 지난 8월 서울, 광주에서 개최한 2차례의 공청회와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안이다.

이 종합계획안은 늦어도 10월 초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0월 8일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심포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당초 4조8천772억원이었으나 조성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랜드마크 보안 및 투자진흥지구설치, 아

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2천억원 정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제시한 의견을 수용해 5조 7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문화전당 랜드마크 보완과 대형 전문공연장 건립 등의 문제는 내년 예산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랜드마크는 전당 인접지에 별도의 상징물을 통해 보완하며, 전문공연장은 전당 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 광주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전당 외곽 주차장은 문광부 안대로 600대 규모의 내부 주차장을 둔 상태에서, 인근 광주여고 부지 등에 1천여대 규모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

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1월3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예비종합계획이 발표된 지 2년여 만에 종합계획안이 완성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